

으나 불행하게도 여덟 명 모두 전사하였다. 부인은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말하기를, ‘스파르타야! 스파르타야!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노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탈리아에 살았던 메리야라고 하는 여성은 비록 기생집 출신이었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 여성은 재정 방침을 연구하고 청년 사상을 고취하며 백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 의지와 기개 그리고 신출귀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전쟁을 지휘하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불행하게도 그 열렬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감은 눈을 다시 뜨고는 ‘여러분! 여러분! 국가!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 유언을 듣고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끓어올라 죽기를 맹세한 덕택에 이탈리아의 독립이 그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진주의 논개씨와 평양의 화월씨가 메리야와 마찬가지로 화류계 출신으로 빼어난 역량을 가진 적의 장수인 가등과 소섭을 죽였다. 쓰러져가던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공이 모두 두 분 선생의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급한 때를 만나 겁이 많고 나약한 옛 습관을 타파하고 반드시 용감한 정신을 발휘해야만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선생님들을 본받아 의리라고 하는 온몸을 가리는 갑주를 입고 신의 위력이라고 하는 방패와 열렬한 정성이라고 하는 비수를 움켜쥔 채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한 마음이 되어 일어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것이고, 우리나라 충신과 열사들의 혼백이 저승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공론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것도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살아서는 독립의 깃발 아래 생기 있고 힘찬 새로운 국민이 되어 보고, 죽어서는 저승에서 이러한 여러 선생님들을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모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니겠는가? 애간장을 녹이며 흐르는 눈물과 깊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결코 변하지 않을 정성 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한 동포 앞에 엮드려 고하하니, 동포여! 동포여!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고 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어서 빨리 분발하시오. 동포 동포여!

대한 독립 만만세

기원 4252년 2월 일

김인중 김숙경 김옥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역 : 정송교